

KCR5 구현형 기술규칙의 KORMARC 적용 방안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Application of KCR5 Manifestation-Level Cataloging Rules to KORMARC

노 지 현 (Jee-Hyun Rho)**
이 미 화 (Mihwa Lee)***
이 은 주 (Eun-Ju Lee)****

목 차

- | | |
|-------------------------|----------------------------|
| 1. 서 론 | 4. KORMARC 통합서지용에서의 구현형 기술 |
| 2. 목록규칙 관련 국제 동향 | 방안 |
| 3. KCR5 구현형 기술규칙의 내용 분석 | 5. 결 론 |

초 록

기존의 목록체계는 개체 관계 모형을 기반으로 한 FRBR 발표 이후에 완전히 새로운 구조로 재편되고 있다. 국내에서도 한국목록규칙의 개정 작업을 시작하여 2025년 6월 「한국목록규칙 제5판」(KCR5)을 완성하였다. 본 연구는 서지데이터의 근간이 되는 '구현형' 개체를 대상으로 KCR5의 주요 개정 사항을 살펴보고, 이를 KORMARC 통합서지용에 적용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KCR5의 구현형 기술규칙을 분석하고, 우리에게 앞서 RDA의 구현형 요소를 MARC21에 적용한 바 있는 국외 도서관의 사례와 관련 연구를 검토하여 초안을 작성한 후 전문가 자문과 실무진 검토를 거쳐 최종안을 도출하였다. KORMARC 통합서지용(2023 개정)에서의 구현형 기술 방안은 구현형 기술규칙에서 가장 큰 변화가 있는 표제 관련 정보, 구현형의 유형, 구현형의 형태적 특징, 서지적 관계로 구분하여 예시와 함께 제안하였다. 본 연구는 새로운 목록체계로의 전환 과정에서 비교적 단기간 내에 적용이 가능한 구현형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시의성을 지닌다.

ABSTRACT

Cataloging systems have been fundamentally restructured since the development of the FRBR conceptual model. In Korea, the international trends led to the publication of the Korean Cataloging Rules, 5th edition (KCR5) in June 2025. This study aims to examine changes in manifestation-level cataloging rules of KCR5 and to explore methods for applying these data to the KORMARC format for bibliographic records. To this end, this study analyzes the manifestation-level rules of KCR5 and reviews cases from overseas libraries that have implemented RDA manifestation elements in MARC21. Based on this analysis, a draft proposal was developed and refined through expert validation and practitioner review. The final recommendations are proposed with examples, organized into four categories reflecting the most significant changes: title-related information, types of manifestation, physical characteristics of manifestations, and bibliographic relationships. This study is timely in addressing practical implementation issues during the transition to a new cataloging framework.

키워드: 한국목록규칙, 구현형 기술, 구현형 요소, 한국문헌자동화목록, 개체관계모델, 자원기술

Korean Cataloging Rules, Cataloging Rules for Manifestation, KORMARC, entity-relationship model, resource description

* 본고는 국립중앙도서관 2025년 『한국목록규칙(KCR) 개정 반영 국가서지 목록지침 개선 연구』를 바탕으로 한 것임.

** 부산대학교 문헌정보학과 교수(jhrho@pusan.ac.kr / ISNI 0000 0004 6484 8385) (제1저자)

*** 공주대학교 문헌정보교육과 교수(leemh@kongju.ac.kr / ISNI 0000 0004 6431 3495) (공동저자)

**** 동의대학교 문헌정보학과 부교수(ejulee@deu.ac.kr / ISNI 0000 0004 6335 8325) (교신저자)

논문접수일자: 2026년 1월 16일 최초심사일자: 2026년 1월 28일 게재확정일자: 2026년 1월 28일
한국문헌정보학회지, 60(2): 125-147, 2026. <http://dx.doi.org/10.4275/KSLIS.2026.60.2.125>

※ Copyright © 2026 Korean Society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This is an Open 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NonCommercial-NoDerivatives 4.0 (<https://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nd/4.0/>) which permits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at the article is properly cited, the use is non-commercial and no modifications or adaptations are made.

1. 서론

기존의 목록체계는 개체 관계 모형을 기반으로 한 FRBR 발표 이후에 완전히 새로운 구조로 재편되고 있다. 개념모형과 목록원칙을 중심으로 전개되어 온 개념적·이론적 논의는 2010년과 2012년에 각각 발표된 RDA와 BIBFRAME을 기점으로 실무 적용과 구현을 전제로 하는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논의로 전환되었다. 이러한 변화의 핵심은 레코드 중심의 데이터를 개체 및 개체 간 관계 중심으로 새롭게 구조화하는 데 있다. 나아가 개체 관계 모형을 링크드데이터 환경에 적합하도록 데이터의 의미와 연결성을 중시하는 시맨틱 모델로 논의를 확대하고 있다. 이에 따라 개념모형은 FRBR에서 IFLA LRM으로, 기존의 RDA(official RDA)는 official RDA로, BIBFRAME은 1.0에서 2.0으로 발전하면서 시맨틱웹 환경을 위한 온톨로지 모델로 재정립되고 있다.

이러한 국제적인 추세에 따라 국내에서도 한국 목록규칙(KCR)의 개정 작업을 시작하여 2025년 6월 한국목록규칙 제5판(이하 KCR5)을 발표하였다(김정현, 2025). KCR5는 첫째, 개체-관계 모델 기반으로의 데이터 구조화, 둘째, 전거 제어의 확대 적용, 셋째, 서지적 관계의 명시적 기술, 넷째, 서지요소의 의미적 측면과 구문적 측면의 분리, 다섯째, 자원의 내용과 물리적 형태의 이원적 구분, 여섯째, 국제적 호환성 제고, 일곱째, KCR4와의 연속성 고려 등을 주요 원칙으로 하여 개정되었다(한국도서관협회, 2025). 이로 인해 KCR5는 이전에 자원유형별 기술규칙으로 구성되었던 KCR4(한국도서관협회, 2003)와 비교하여 구성 체계와 내용에 있어 상당한

변화를 보이고 있다.

KCR5는 FRBR 개념모형에 따라 개체를 구분하되, 이 가운데 주제에 해당하는 개념, 대상, 사건, 장소 개체에 대한 기술규칙은 RDA(RDA Steering Committee, 2017a)와 마찬가지로 유보하였다. KCR5에서 정의한 개체 중에서 저작, 표현형, 개인, 가계, 단체 개체는 KCR4에서 다루지 않았던 전거제어의 대상으로 포함되었으며, 이들 개체의 서지기술은 대부분 전거제어를 위해 사용된다. 이와 달리, 구현형 개체는 KCR4 기술규칙을 상당 부분 계승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서지요소가 구현형이 아닌 다른 개체로 이동하였거나, 요소의 신설이나 특정 요소의 기록 방법 등에서 적지 않은 변경이 이루어졌다.

본 연구는 서지데이터의 근간이 되는 '구현형' 개체를 대상으로 KCR5에서 개정된 주요 내용을 살펴보고, 이를 KORMARC 통합서지용에 적용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KCR5는 MARC와 같은 특정 구문을 전제로 한 목록규칙이 아니므로 국내 도서관계에서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KORMARC에 KCR5의 개정 내용을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별도의 검토가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KCR5의 구현형 기술규칙 및 KORMARC 통합서지용(국립중앙도서관, 2023)의 필드를 분석하고, 우리에게 앞서 RDA의 구현형 요소를 MARC21에 적용한 바 있는 국외 도서관의 사례와 관련 연구를 검토하였다. 이어, 연구진이 도출한 초안에 대해 전문가 검증과 실무진 검토를 거쳐 최종안을 제안하였다. 전문가 검증에는 RDA에 대한 이해도가 높고 KCR5 개정 작업에도 참여했던 문헌정보학과 교수 3명과 대학 도서관 사서 1명이 참여하였으며, 실무진 검토

는 국립중앙도서관 국가서지과 사서들에 의해 이루어졌다. 본 연구의 결과는 새로운 목록체계의 전환 과정에서 단기간 내에 적용이 가능한 구현형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시의성을 가진다.

2. 목록규칙 관련 국제 동향

2.1 구현형 기술방식의 변화

RDA에서 자원은 저작, 표현형, 구현형, 개별 자료 등 개체별로 기술된다. 개체마다 탐색과 식별에 필요한 서지요소를 다르게 설정하고 있으며, 서지요소는 대상이 되는 개체에 특화되어 있다. 즉, 저작의 요소는 오직 저작 개체에만, 표현형의 요소는 오직 표현형 개체에만, 구현형의 요소는 오직 구현형 개체에만 기술한다. 요소는 자원기술에서 필수적으로 포함해야 하는 요소, 해당되는 경우 포함해야 하는 요소, 권장 또는 선택적으로 포함할 수 있는 요소로 구분되어 있다.

각 요소는 비구조화 기술, 구조화 기술, 식별자, 국제자원식별자(IRI) 등 4가지 기록방법 중에서 선택하여 기록할 수 있다. 일부 요소는 여러 가지 기록방법을 허용하지만, 특정 기록방법만으로 제한하는 경우도 있다. 비구조화 기술은 정보원에 나타난 그대로 혹은 구조화되지 않은 방식으로 기록하는 주기 등을 말하며, 구조화 기술은 통제어휘나 전거형접근점, 구조화된 데이터 형식 등으로 기술하는 방법을 말한다. 또한 개체나 개념 등을 지칭하는 URI나 IRI와 같은 식별자라도 요소 값을 기술할 수 있다.

RDA는 내용이 방대하고 다양한 선택지를

포함하고 있어, 특정 기관이나 시스템, 데이터 환경에 맞게 적용 범위와 제한사항을 명시한 'RDA 응용 프로파일'을 활용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RDA 응용 프로파일은 적용할 개체와 요소의 범위, 요소의 필수·선택 여부, 값 유형이나 통제어휘, 전거파일의 유형, 적용할 데이터 구문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한 일종의 지침서라고 할 수 있다. RDA 응용 프로파일이라는 용어는 RDA 구현 과정에서 새롭게 부각된 개념이지만, BIBCO, NACO 등과 같은 전통적인 협력 기반의 목록 환경에서 이미 사용해 온 목록 관행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RDA 응용 프로파일의 사례로는 영국국가도서관(BL), 미의 회도서관(LC)과 같은 국가도서관이나, EURIG (The European RDA Interest Group), PCC (Program for Cooperative Cataloging), MLA (Music Library Association)와 같은 협력체계, 그리고 University of Washington Libraries와 같은 개별 도서관에서 개발한 RDA 응용 프로파일이 있다.

한편, 국제표준서지기술(ISBD)은 2011년 통합판으로 개정되면서 FRBR을 반영하였으나 링크드데이터 환경에 적합하지 않아 후속 개정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이에 ISBD 통합판을 LRM의 개체 구조에 부합하도록 재구성하고, 시맨틱웹 및 링크드데이터 환경에 적합한 서지 기술 표준으로 개정하는 작업을 시작하였다. 이에 2025년 '구현형' 개체를 대상으로 한 ISBDM (ISBD for Manifestation)을 가장 먼저 발표하고, 이어서 저작, 표현형 등 다른 개체를 대상으로 하는 ISBD를 단계적으로 발표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ISBDM에서는 구현형 개체에 대한 기술의 범위를 명확히 설정하고, ISBD 통합

판에서 규정한 9개 영역의 서지요소를 거의 대부분 수용하되 요소의 기술방식을 ‘서술’, ‘속성’, ‘주기’, ‘관계’의 네 가지 범주로 구조화하였다(Dunsire, 2023). 다만, ISBDM에서는 모든 정보를 독립적인 요소로 처리함에 따라, 이전의 ISBD에서 중요하게 다루었던 요소의 순서와 배치, 지정 구두점 등과 같은 전통적인 구문 규칙은 배제하였다(ISBD Review Group, 2025).

ISBDM 표준 문서에 제시된 기술 예시를 기존 ISBD 통합판의 기술방식과 비교하면 <그림 1>과 같다. 『ISBD 통합판』은 9개 영역과 지정 구두점을 사용하여 정보를 하나의 연속된 문장

형태로 기술하므로 사람이 시각적으로 정보를 파악하기에 용이하지만, 개별 정보의 독립성이 낮고 기계 처리를 전제로 하는 활용에서는 한계를 가진다. 반면, ISBDM은 모든 정보를 독립된 ‘요소-값’의 쌍으로 분해하여 기술한다. 즉, ‘서술’을 통해 자원에 표기된 표제와 책임표시를 그대로 전사하고, ‘속성’을 통해 형태적 특성을 기술하며, ‘관계’를 통해 발행처, 발행지, 표현형, 저작 등 관련 개체와 연결한다. 이러한 방식은 기술 요소를 보다 세분화하고 각 요소를 명확히 정의함으로써 목록자의 해석이나 판단에 의존하기보다는 자원에 근거한 서지기술을

ISBD 통합판	ISBDM
Text (unmediated) Emma / Jane Austen : edited with an introduction by Ronald Blythe. -- Reprinted. -- Harmondsworth, England: Penguin Books, 1971. -- 1 volume (471 pages) : [크기]. -- (Penguin English library). -- ISBN 0-14-043101-5	표제 및 책임표시: Jane Austen, Emma, edited with an introduction by Ronald Blythe 호나 갱신호: Penguin English library 발행, 생산, 제작 배포: Penguin Books Ltd, Harmondsworth ... England, ... Reprinted 1971 식별기호 및 입수조건: ISBN 0-14-043101-5
	본표제: Emma 전거형접근점: Emma (1971; Penguin Books: volume) 식별자: 0140431015
	집합에이전트: Penguin Books 발행지: Harmondsworth (England) 발행년: 1971
	수록매체 유형: volume 매체유형: unmediated 내용유형: text 간행방식: single unit 제본: perfect binding 수량: 1 volume (471 pages)
	관련 표현형: Austen, Jane, 1775-1817, Emma (text: English) 관련 표현형: Blythe, Ronald, 1922-2023, Introduction (Emma: text: English) 관련 저작: Blythe, Ronald, 1922-2023, Emma 관련 개인: Austen, Jane, 1775-1817 관련 개인: Blythe, Ronald, 1922-2023

<그림 1> ISBD 통합판 및 ISBDM 기술 사례 비교

출처: ISBD Review Group(2025)

지향하고, 데이터의 재사용성과 확장성을 극대화한다는 점에서 구조적 진화로 평가되고 있다.

2.2 MARC 적용에서의 변화

개체 기반의 서지기술을 지향하고, 다른 기관과의 데이터 공유를 확대하며, 자관의 자원이 웹 환경에서 보다 효과적으로 노출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BIBFRAME과 같은 시맨틱 기반 데이터 모델의 도입이 필요하다. 그러나 BIBFRAME 모델로의 전면적인 전환 이전에 활용할 수 있는 현실적인 대안으로 'Linky MARC'라는 개념이 등장하였다. Linky MARC는 "PCC Task Group on URIs in MARC" 논의 과정에서 등장한 개념으로, MARC 레코드에서 사람, 기관, 장소, 주제 등 주요 개체에 URI 식별자를 수록함으로써 링크드데이터의 연결성을 부여하려는 전략적 접근 방식이다(Wallis, 2018). 이에 따라 PCC 참여기관들은 2019년부터 'PCC URIs in MARC' 파일럿 프로젝트를 통해 서지 및 전거레코드에 URI를 추가해 오고 있다.

이에 더해 Modern MARC는 MARC 데이터를 링크드데이터 환경과 보다 조화롭게 연계하기 위해 LC에서 공식적으로 제시한 목록 정책 혹은 실무 방향을 일컫는 개념이다. Modern MARC는 '현대적인 MARC 레코드'의 생산을 목표로 하여, 기존의 고정길이 필드에 기록되던 부호화 데이터의 사용을 자제하고, 대신에 가변길이 필드에 텍스트 기반의 데이터를 보다 풍부하게 기록하는 방향을 지향한다. 또한 URI와 같은 식별자의 사용을 확대함으로써 RDA 기반 기술과의 정합성을 높이는 데 목표를 두고 있다. LC는 이러한 변화를 기 구축된 데이

터에 대한 대규모 소급 변환 방식이 아니라, 목록자들이 일상적인 목록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점진적으로 적용해 나갈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이러한 Modern MARC는 2024년 9월부터 LC에서 생산한 목록레코드에서 확인할 수 있다(Library of Congress, 2023).

Modern MARC에서의 주요 변화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Library of Congress, 2023; Williamschen, 2025).

첫째, 부호화 데이터보다는 텍스트 기반 데이터의 사용을 선호하는 방향으로 기술 관행이 전환되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특히 MARC의 007, 008 필드와 같은 부호화 데이터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예를 들어, "캔버스에 흑백으로 그린 드로잉화"를 나타내는 007 필드의 정보는 RDA 도입을 위해 신설된 340 필드에 <그림 2>와 같이 기술한다. 이를 위해 목록자들은 34X 필드의 사용에 대한 교육을 받고 있으나, 기존의 고정필드 기록 관행도 여전히 병행하고 있어 데이터의 중복과 그로 인한 업무 부담을 초래하고 있다. 이에 따라 LC에서는 과도기적 조치로 007 필드의 앞 두 자리만 사용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둘째, 데이터에 URI와 같은 식별자의 사용이 적극적으로 권장되고 있다. URI의 도입은 단순히 새로운 데이터를 추가하는 데 그치지 않고, MARC 데이터의 모델링 방식 자체에 변화를 야기하고 있다. <그림 2>와 같이 기존에는 하나의 필드에 복수의 값을 기록하는 것이 일반적이었으나, URI와 레이블을 명확히 연결하기 위해서는 각 값을 분리하여 기술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그림 3>과 같이 필드를 반복하여 기술하는 방식으로 전환되고 있다.

007 kdbbc
340 \$b ▼acardboard ▼dcollo type ▼gblack and white

〈그림 2〉 부호화 데이터에 대한 텍스트 데이터의 기술

340 \$b ▼acardboard ▼0http://id.loc.gov/vocabulary/mmaterial/crd
340 \$b ▼dcollo type ▼0http://id.loc.gov/vocabulary/mproduction/collo
340 \$b ▼gblack and white ▼0http://id.loc.gov/vocabulary/mcolor/blw

〈그림 3〉 URI 식별자의 적용

셋째, PCC 정책에 따라 ISBD 구두점의 사용을 최소화하고 적용에 유연성을 부여하는 방향으로 기술 관행이 변화되고 있다. 예를 들어, 245와 264 필드는 ISBD 구두점을 그대로 유지하는 반면, 250, 490 필드는 부분적으로만 ISBD 구두점을 적용하며, 그 외 필드는 최소한의 ISBD 구두점만 사용한다(〈그림 4〉 참조). 이러한 Modern MARC는 MARC 리더부의 목록기술형식(리더/18)에도 반영되어 ISBD 구두점을 포함하는 경우 “i”, ISBD 구두점을 최소화하는 경우 “c”로 구분한다. 다만 실제로는

“i”(ISBD 구두점 포함)로 유지한 채 내부적으로 기술 관행을 조정하는 방식이 더 많이 적용되고 있다.

넷째, RDA의 도입에 따라 생산, 발행, 배포, 제작 정보를 분리하여 기술할 수 있도록 264 필드가 신설되었다. 기존의 MARC에서는 260 필드가 반복 불가능하여 여러 정보를 하나의 260 필드에 통합 기술할 수밖에 없었으나, Modern MARC에서는 각 정보를 264 필드에 분리하여 기록함으로써 자원의 특성을 보다 명확하게 표현할 수 있게 되었다(〈그림 5〉 참조).

LDR/18-i (ISBD 구두점 포함)	245 10 ▼aWhat puppies do best / ▼cby Laura Numeroff : illustrated by Lynn Munsinger 700 1\$ ▼aOrcutt, Beth, ▼d1980- ▼eeditor. ▼0http://id.loc.gov/authorities/names/n2019022861
LDR/18-c (ISBD 구두점 생략)	300 \$b ▼a464 pages ▼billustrations ▼c22 cm 700 1\$ ▼aOrcutt, Beth, ▼d1980- ▼eeditor ▼0http://id.loc.gov/authorities/names/n2019022861

〈그림 4〉 ISBD 구두점 적용의 변화

기존	260 \$b ▼aLondon, England: ▼bPenguin Books : ▼aNew York, N.Y.: ▼bPenguin Putnam, ▼c1999.
Modern MARC	264 \$1 ▼aLondon, England: ▼bPenguin Books. 264 \$1 ▼aNew York, N.Y.: ▼bPenguin Putnam, ▼c1999.

〈그림 5〉 260 필드에서 264 필드로의 변화

3. KCR5 구현형 기술규칙의 내용 분석

3.1 KCR4와 KCR5의 구현형 기술요소 비교

KCR4의 자료유형별 기술규칙은 KCR5의 '구현형' 규칙에 대부분 계승되었으나, 자원유형별로 분리되어 있던 기술규칙의 구성 방식이 KCR5에서 요소별 기술규칙으로 전면 개편되었다. 구현형 수준에서 KCR4와 KCR5의 기술요소를 비교하면 <표 1>과 같다.

KCR4에서는 기술대상 자원의 유형을 나타내는 일반자료유형(GMD)을 본표제 다음에 기술하고, 기술대상 자원의 세부적인 형태, 즉 특정자료종별(SMD)을 형태사항에 기록하도록 규정하였다. 그러나 KCR5에서는 이러한 정보를 보다 세분하여 매체유형, 수록매체유형, 내용유형으로 구분하였다. 이 가운데 내용유형은 표현형의 속성으로, 매체유형과 수록매체유형은 구현형의 속성으로 정의되어 있다. 매체유형과 수록매체유형은 KCR5에서 구현형 기술 중 수록

매체사항(1.1.6)의 하위요소이다.

또한, KCR4에서 지도자료, 악보, 전자자료, 마이크로자료, 연속간행물, 입체자료 등에서 자원유형별 간행 상의 특성이나 기타 특이 사항을 기술하기 위한 '자료특성사항'을 KCR5에서 폐지하고, 해당 정보를 저작, 표현형, 구현형 등 각 개체의 속성으로 재분류하여 구조화하였다. 이에 따라 KCR4의 자료특성사항에 포함되었던 정보는 <표 2>와 같이 KCR5에서 서로 다른 개체의 속성으로 정의되어 있다. KCR4에서 자료특성사항에 기술된 정보 중 구현형의 속성으로 기록하는 정보는 디지털파일 특성(1.1.6.16)과 수량(1.1.6.3), 연속간행물의 권호사항(1.1.4)이다.

한편, KCR4의 형태사항은 KCR5에서 수록매체사항으로 변경되고 하위요소가 크게 확장되었다. 특히, KCR5에서는 매체의 물리적 특성이나 매체에 저장된 정보의 형식, 부호화 측면 등에 관한 정보를 기록하기 위해 KCR4의 주기사항에 포함되어 있던 일부 정보를 구현형의 속성으로 재정의하였다. KCR4에서 형태사

<표 1> KCR4와 KCR5의 구현형 기술요소 비교

구분	KCR4	KCR5
기술 요소	1) 표제와 책임표시사항 [GMD] 2) 판사항 3) 자료특성사항 4) 발행사항 5) 형태사항 [SMD] 6) 총서사항 7) 주기사항 8) 표준번호 및 입수조건사항	1) 표제(1.1.1) 2) 책임표시(1.1.2) 3) 판사항(1.1.3) 4) 연속간행물의 권호사항(1.1.4) 5) 발행사항(1.1.5) 6) 수록매체사항(1.1.6) 7) 총서사항(1.1.7) 8) 간행방식(1.1.8) 9) 간행빈도(1.1.9) 10) 구현형 주기(1.1.10) 11) 구현형의 식별기호(1.1.11) 12) 입수 및 접근정보(1.1.12)

〈표 2〉 KCR4 자료특성사항의 변경

구분	KCR4의 자료특성사항	KCR5의 개체 및 속성	
		적용 개체	개체의 속성
하위 요소	지도자료의 축척이나 좌표	저작	지도의 좌표(1.3.8.3)
		표현형	축척(1.4.6.14) 지도의 도법표시(1.4.6.15)
	악보의 종류	표현형	악보 형식(1.4.6.11)
	전자자료의 내용 및 크기	구현형	디지털파일 특성(1.1.6.16) 수량(1.1.6.3)
	연속간행물의 권호차, 연월차	구현형	연속간행물의 권호사항(1.1.4)
	입체자료의 축소 및 확대비율	표현형	축척(1.4.6.14)

〈표 3〉 KCR4 형태사항의 변경

구분	KCR4의 형태사항	KCR5의 수록매체사항	
		적용 개체	개체의 속성
하위 요소	특정자료종별과 자료의 수량	구현형	매체유형(1.1.6.1) 수록매체유형(1.1.6.2) 수량(1.1.6.3)
	기타 형태사항	구현형	극성 (양화, 음화 등) (1.1.6.11) 음향특성(1.1.6.13) 영화필름의 영사특성(1.1.6.14) 비디오 특성(1.1.6.15) 디지털파일 특성(1.1.6.16)
		표현형	삽화 색상 음향 화면비율
	크기	구현형	크기(1.1.6.4)
	딸림자료	-	(딸림자료의 수록매체유형, 수량, 크기 등은 세트 로 별도 기록)
	-	구현형	주재료(1.1.6.5) 제작방법(1.1.6.6) 세대(1.1.6.7) 레이아웃(1.1.6.8) 도서형식(1.1.6.9) 글자크기(1.1.6.10) 축소율(1.1.6.12) 장비나 시스템 요건(1.1.6.17)

항으로 기술되던 정보 중 삽화, 색상, 음향, 화면비율은 KCR5에서 표현형의 속성으로, 그 외 대부분의 정보는 구현형의 기술요소인 수록매

체사항(1.1.6)의 하위요소로 정의되어 있다(〈표 3〉 참조).
이외에, 구현형의 요소로 정의되지 않은 정

보는 KCR4와 마찬가지로, KCR5에서도 '주기사항'으로 기록하도록 허용하고 있지만, 하위요소의 구성에 있어서는 일부 차이가 있다. 특히, KCR4의 주기사항 요소 중에서 KCR5에서 구현형의 속성으로 정의되지 않은 하위요소가 있는데, 학위논문주기, 내용주기, 이용대상자 주기는 '저작'의 속성으로, 언어주기, 부록주기, 수상 주기는 '표현형'의 속성으로, 소장본 주기는 '개별자료'의 속성으로 정의되어 KCR5 구현형의 주기에서 빠져있다(〈표 4〉의 밑줄 부분).

한편, KCR5는 KCR4와 달리, 자원의 탐색과 식별을 위해 필수적인 요소를 '핵심요소'로

설정하고 있다. 여기에는 특정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에만 핵심요소인 것도 있다. 구현형의 기술요소 중에서 KCR5에서 핵심요소로 설정된 요소는 〈표 5〉와 같다.

3.2 구현형 기술규칙의 주요 개정사항

구현형 기술의 대상과 관련하여, KCR4는 원칙적으로 자료 자체를 대상으로 하여 기술하도록 규정하였으나, KCR5에서는 해당 자원의 간행방식(단권자원, 다권 단행자원, 연속간행물, 통합자원)을 전체적으로 파악한 후 그 자원의

〈표 4〉 KCR4와 KCR5의 주기사항 비교

구분	KCR4의 주기사항	KCR5의 주기사항
하위 요소	1.7.3.1 자료의 성격이나 범위 또는 예술적 표현양식	1.1.10.1 표제 주기
	<u>1.7.3.2 본문이나 초록의 언어, 번역이나 개장, 번안 등에 관한 주기</u>	1.1.10.2 책임표시 주기
	1.7.3.3 본표제의 정보원에 관한 주기	1.1.10.3 판사항 주기
	1.7.3.4 상이한 표제에 관한 주기	1.1.10.4 연속간행물의 권호사항 주기
	1.7.3.5 대등표제와 표제관련정보 주기	1.1.10.5 발행사항 주기
	1.7.3.6 책임표시 주기	1.1.10.6 수록매체사항 주기
	1.7.3.7 판표시와 서지적 내력 주기	1.1.10.7 총서사항 주기
	1.7.3.8 자료의 특성 주기	1.1.10.8 간행빈도 주기
	1.7.3.9 발행과 배포 주기	1.1.10.9 정보원 주기
	1.7.3.10 형태사항 주기	1.1.10.10 구현형의 식별기호 주기
	1.7.3.11 딸림자료 주기	
	1.7.3.12 총서사항 주기	
	<u>1.7.3.13 학위논문 주기</u>	
	<u>1.7.3.14 이용 주기</u>	
	1.7.3.15 상이한 형태의 자료 주기	
	1.7.3.16 요약이나 해제, 초록 주기	
	1.7.3.17 참고서목, 연보, 연표, 색인, 원문주기	
	<u>1.7.3.18 내용주기</u>	
	1.7.3.19 표준번호 이외의 번호 주기	
	<u>1.7.3.20 합철본 주기</u>	
	<u>1.7.3.21 부록 주기</u>	
	1.7.3.22 분립 주기	
	1.7.3.23 기금정보 주기	
	<u>1.7.3.24 수상 주기</u>	
	<u>1.7.3.25 소장 주기</u>	

〈표 5〉 KCR5의 기술요소 중 핵심요소

KCR5의 기술요소	하위요소 중 핵심요소
1.1.1 표제	1.1.1.1 본표제
1.1.2 책임표시	1.1.2.1 본표제관련 책임표시(복수인 경우 첫 번째 책임표시)
1.1.3 판사항	1.1.3.1 판표시 1.1.3.5 개정판의 명칭표시
1.1.4 연속간행물의 권호사항	1.1.4.1 창간호의 권호표시 1.1.4.2 창간호의 연월표시 1.1.4.3 중간호의 권호표시 1.1.4.4 중간호의 연월표시
1.1.5 발행사항	1.1.5.1 발행지(복수인 경우, 첫 번째 발행지, 발행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첫 번째 배포지나 제작지, 미간행자원의 제작지) 1.1.5.3 발행처(복수인 경우 첫 번째 발행처, 발행처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첫 번째 배포처나 제작처, 미간행자원의 제작처) 1.1.5.5 발행일(발행일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관련일이나 배포일, 제작일, 미간행자원의 제작일) 1.1.5.6 관련일(발행일과 배포일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1.1.6 수록매체사항	1.1.6.2 수록매체유형 1.1.6.3 수량(자원이 완전하거나 전체 수량을 이는 경우)
1.1.7 총서사항	1.1.7.1 총서 본표제 1.1.7.8 총서 권호 1.1.7.9 하위총서 본표제 1.1.7.16 하위총서 권호
1.1.8 간행방식	-
1.1.9 간행빈도	-
1.1.10 구현형 주기	-
1.1.11 구현형의 식별기호	1.1.11 구현형의 식별기호(복수인 경우, 국제표준기호를 우선)
1.1.12 입수 및 접근정보	-

특정 구현형을 선택하여 기술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아울러, 기술의 대상이 되는 구현형의 속성을 기록한 다음, 개별자료, 해당 구현형이 속한 저작 및 표현형, 그리고 필요에 따라 다른 개체(개인, 가계, 단체, 장소)의 순으로 기록한다. 또한 기술의 대상에 대해 KCR5에서는 해당 구현형 전체를 대상으로 기술하는 '종합기술', 둘 이상의 부분을 갖는 구현형 중 일부분만을 대상으로 하는 '분석기술', 종합기술과 분석기술을 결합한 방식, 즉 전체와 부분을 모두 기록하는 '계층기술'의 세 가지 기술유형 중에서 적합한 방법을 선택하여 기록하도록 하는 부분

이 KCR4와 많이 다른 점이다.

또한 기록의 순서와 형식에 대해, KCR4는 ISBD에서 규정한 기술요소의 순서, 구두점 등을 적용하여 조직적으로 기술하도록 규정하였으나, KCR5는 요소의 기록 범위와 기록방법만을 규정하고, 요소나 요소군의 기록 순서, 구두점, 출력 형식 등과 같은 구문적 측면을 배제하였다. 앞서 2장에서 살펴본 RDA나 ISBDM과 같이, 요소는 개체의 속성별로 따로 기술하도록 하였기 때문이다.

KCR5에서는 요소의 기록방법을 총 5가지로 구분하고 있다. 5가지 기록방법 중에서 '제어형

방식'은 저작, 표현형, 개인, 가계, 단체 등과 관련된 표제와 이름을 기록하는데 사용되므로 구현형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제어형 방식을 제외하고 나머지 4가지 기록방법이 적용되는 구현형 요소는 <표 6>과 같다.

오류나 오기, 누락의 기록방법도 KCR5에서 변경되었다. KCR4에서 해당 부분에 [sic], [!] 등을 표시하거나 '실은' 또는 'i.e'를 앞세워 올바르게 고친 표현을 각괄호([]) 등에 부기하도록 한 규정이 KCR5에서는 "특별한 지시가 없는 한 그대로 기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올바른 표기로 고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를 주기사항이나 이형표제 등에 별도로 기록하도록 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KCR4에서 본표제 앞에 원괄호로 묶어 기술하도록 한 '관제'도 KCR5에서 삭제되었다. 즉, 관제를 본표제의 일부로 기록하고(원괄호 없이 그대로), 관제를 제외한 표제를 이형표제에 기록하도록 점이 KCR5에서 달라진 점이다. KCR4와 비교하여 KCR5에서 변경된 기록방법을 제시하면 <표 7>과 같다.

3.3 구현형을 토대로 하는 서지적 관계의 기술

개체 관계 모델에서는 개체의 속성 기술뿐 아니라 관계 기술이 매우 중요하다. KCR5는

RDA(RDA Steering Committee, 2017a)를 참고하여 저작, 표현형, 구현형, 개별자료, 개인, 가계, 단체, 주제 사이에 존재하는 다양한 서지적 관계를 기록하는 방법을 규칙에 포함하였다. 이러한 서지적 관계를 기록하는 목적은 이용자의 자원 탐색, 식별, 선정에 도움을 주고 각종 개체로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안내하는 데 있다. KCR5에서는 관계의 유형을 자원에 관한 기본적인 관계(3.1), 자원과 연관된 개인, 가계, 단체(3.2), 저작, 표현형, 구현형, 개별자료 간의 관계(3.3), 개인, 가계, 단체 간의 관계(3.4) 등 4개로 구분하고 있다. 이 가운데 구현형을 토대로 하는 서지적 관계는 <표 8>과 같다.

먼저, 구현형에서 저작으로의 관계는 해당 구현형에 대한 하나 이상의 저작을, 구현형에서 표현형으로의 관계는 해당 구현형으로 구체화된 표현형을 말한다. 구현형에서 표현형으로의 관계를 기록하는 경우에는 구현형에서 저작으로의 관계를 기록하지 않는다. 구현형에 대한 저작과 표현형은 전거형접근점이나 식별기호, 통합기술 중 하나 이상의 방법으로 기록하고, 구현형에 대한 개별자료는 식별기호나 전거형접근점으로 기록한다. 서지적 관계 기록의 예시는 <표 9>와 같다.

구현형과 연관된 개인, 가계, 단체는 ① 발행처, ② 배포처, ③ 제작처, ④ 미간행자원의 제작처, ⑤ 구현형과 연관된 기타 개인, 가계, 단

<표 6> 구현형 요소의 기록방법

기록방법	요소
1) 정보원에 기재되어 있는 그대로 기록	표제(1.1.1), 책임표시(1.1.2), 판사항(1.1.3), 연속간행물의 권호사항(1.1.4), 발행사항(1.1.5), 총서사항(1.1.7)
2) 규칙에서 제시하는 용어 중 선택하여 기록	수록매체유형(1.1.6.2), 간행방식(1.1.8), 간행빈도(1.1.9)
3) 계수 및 계측값을 단위로 기록	수록매체의 수량(1.1.6.3), 수록매체의 크기(1.1.6.4)
4) 기타 어구나 문장 등으로 기록	위에 해당하지 않는 요소

〈표 7〉 KCR4와 KCR5의 기록방법 비교

구분	KCR4	KCR5
기록의 언어와 문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지기술 요소 중 표제와 책임표시사항, 판사항, 발행사항, 총서사항은 대상자료에 쓰여진 언어나 문자 그대로 기록, 그 외는 한국어 표기 원칙 • 한자는 정자와 약자 간의 상호 사용을 허용, 일본가나를 제외한 비로마자는 표준 번자체계로 기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원의 정보원에 기재된 언어나 문자 그대로 기록(한국어, 중국어, 일본어, 영어를 비롯한 로마자)하고, 그 외 문자는 로마자로 번자표기
숫자나 서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표제와 책임표시사항의 숫자는 그 자료에 쓰여진 그대로 기재 • 서수는 표제와 책임표시사항에서는 권차, 회차, 연차 표시를 빼놓고 그 자료에 쓰여진 그대로 기재, 그 이외의 기술사항의 경우에는 고유명사를 빼놓고 아라비아 숫자에 서수를 나타내는 문자(예: 第, 제, th, 또는 이의 상등어)를 앞 또는 뒤에 적절히 덧붙여서 기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자나 권차, 회차, 연차표시 등이 아라비아 숫자 이외의 숫자나 어구로 표시된 경우, 본표제의 일부로 기록되는 종속표제의 권차, 연속간행물의 권호 및 연월표시, 판표시, 발행일자, 총서권호에서 특별한 지시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에 상응하는 아라비아 숫자로 기록, 그 외의 요소에서는 정보원에 나타난 그대로 기록 • 서수는 자원에 나타난 그대로 기록, 단, 표제나 책임표시 등의 고유명사를 제외하고 서수를 나타내는 한국어 문자 가운데 숫자는 아라비아 숫자로 기록
오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잘못 기재된 경우는 그대로 기재하고 그 다음에 [!] 또는 [sic]를 부기하거나, '실은' 또는 'i.e.'를 앞에 적어 그바른 꼴을 각괄호([])로 묶어 부기 • 빠진 글자는 각괄호로 묶어 보기, 빠진 글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위치에 물음표(?)를 빠진 글자의 수만큼 각괄호로 묶어 보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현형의 정보원에 오류나 오기가 있는 경우 구현형의 각 요소에 특별한 지시가 없는 한 그대로 기록 • 식별이나 접근을 위해 중요한 경우, 올바른 표기로 고쳐서 해당 구현형 주기에 기록, 표제에 오류가 있고 수정된 형태의 표제가 식별이나 접근에 중요하다고 판단하면, 이를 이형표제로 기록
로마자의 대문자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술되는 언어의 관용법에 따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저작과 구현형의 표제 또는 부·편·보유의 표제는 첫 번째 단어의 첫 문자, 첫 번째 단어의 약어를 대문자로 시작, 표제관련정보의 첫 번째 단어나 첫 번째 단어의 약어는 대문자로 시작하지 않음 • 저작과 구현형의 표제에 어두관사가 있는 경우, 정보원에 있는 그대로 기록함
약어 표기	<p>p. ill. col. facsim. ed. [S.l.] [s.n.] [n.d.]</p>	<p>pages illustrations color facsimile edition [place of publication not identified] [publisher not identified] [date of publication not identified]</p>

〈표 8〉 구현형을 중심으로 하는 서지적 관계

자원에 관한 기본적 관계(3.1)	자원과 연관된 개인, 가계, 단체(3.2)	저작, 표현형, 구현형, 개별자료 간의 관계(3.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현형에서 저작으로의 관계*(3.1.4) • 구현형에서 표현형으로의 관계*(3.1.6) • 구현형에서 개별자료로의 관계(3.1.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현형과 연관된 개인, 가계, 단체(3.2.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련 구현형(3.3.3)

*는 핵심요소임

〈표 9〉 자원에 관한 기본적 관계 기록의 예시

구현형	관계의 기록방법
82년생 김지영 / 조남주. -- 서울: 민음사, 2016	조남주, 1978- . 82년생 김지영 [저작 전거형접근법]
상실의 시대: 무라카미 하루키 장편소설 / 무라카미 하루키 지음 ; 유유정 옮김. -- 서울: 문학사상, 2012 -- 원표제: ノルウェイの森	(※ 구현형 기술에 저작의 원표제를 통합 기술함)
Please look after mother / Kyung-Sook Shin ; translated from the Korean by Chi-Young Kim	신경숙, 1963-. 엄마를 부탁해. 영어 [표현형 전거형접근법]
서울 국제음악제 / KBS 제작. -- 서울: 한국방송사업단, 1988. -- 공연장소: 예술의 전당 콘서트홀. -- 공연일자: 1988.9.18.	(※ 구현형 기술에 표현형의 공연장소 및 일자를 통합 기술함)
당신들의 천국 / 이청준 저. -- 서울: 문학과 지성사, 1980	813.6 이717ㄷ -980 c.2 [개별자료의 식별기호]

체이다. 기술 예시는 다음과 같다.

- 발행처: 경주김씨당포친족회
- 배포처: 한국행정정책연구원
- 제작처: MBC 프로덕션
- 각수: 백문기, 1927-2018

마지막으로, 관련 구현형은 구현형 간의 관계를 말한다. 관련 구현형은 관련 구현형에 부여된 식별기호, 관련 구현형을 식별할 수 있는 속성을 표준화된 형식(구조화 기술) 혹은 표준화된 형식이 아닌 어구나 문장(비구조화 기술)으로 기록한다. 필요한 경우 관련 구현형을 나타내는 ‘관계표시어’를 사용하여 관계 특성을 명확하게 표시할 수 있다. 관계표시어는 KCR5의 〈부록 C2〉를 참고하여 작성하고, 부록에 적절한

용어가 없는 경우에는 관계 특성을 나타내는 다른 간략한 용어로 기록할 수 있다. 관련 구현형에 대한 기록 예시는 〈표 10〉과 같다.

4. KORMARC 통합서지용에서의 구현형 기술 방안

KCR5 기술규칙은 RDA와 마찬가지로 KORMARC와 같은 특정 구문을 전제로 하지 않는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KORMARC에의 적용을 위해 다음과 같은 기본 원칙을 우선 설정하였다.

첫째, KCR5는 RDA나 ISBDM과 같이 개체의 요소를 독립적으로 기술하는 것을 전제로 하므로 요소의 기술 순서나 구두점에 대한 규칙을

〈표 10〉 관련 구현형에 대한 기록 예시

구현형	관련 구현형의 기록방법
조선 요리 제법 / 방신영. -- 서울: 한성도서, 1939	복제 (구현형): 조선 요리 제법 / 방신영. -- 서울: 열화당, 2011
대학의 역사 / 이광주. -- 서울: 살림, 2018.	이판 (구현형): ISBN 9788952239235
청록집 / 박목월, 조지훈, 박두진 지음. -- 서울: 을유문화사, 2006 -- “청록집”을 전자책으로 복각	(※ 구현형 기술에 관련 구현형을 비구조화 방식으로 기술함)

별로 두지 않고 있다. 그러나 KORMARC는 이러한 개체 관계 기반의 서지기술을 위한 인코딩 포맷이 아니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요소의 기술 순서나 구두점은 기존의 기록 관행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다. 둘째, KCR5의 적용을 위해 KORMARC 형식의 개정을 새롭게 제안하기보다는 가급적 현재의 KORMARC 형식에 KCR5를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다. 셋째, 현재의 KORMARC에서도 URI와 같은 식별자의 적용이 가능하지만 이를 위해서는 온톨로지 구축이 선행되어야 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개체 식별을 위한 URI의 적용은 제외하였다.

이러한 기본 원칙 하에, 연구팀에서 RDA to MARC bibliographic mapping(RDA Steering Committee, 2017b) 등 관련 자료와 기술 사례를 참고하여 초안을 작성하고, 이후 전문가 자문과 실무진 검토를 거쳐 최종안을 도출하였다. 전문가 자문은 연구팀이 작성한 초안 중 재검토가 필요한 부분이나 연구팀과 의견이 상이한 사항에 대해 서면으로 의견을 수집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이를 바탕으로 초안을 수정·보완한 후 국립중앙도서관 국가서지과 실무진의 의견을 대면 및 서면 형식으로 추가 수렴하였다. 이와 같이 KCR5를 KORMARC 통합서지용(2023 개정)에 적용하기 위한 최종안은 '연구팀 초안 작성 → 전문가 자문 → 실무진 검토'의 3단계 절차를 거쳐 도출되었으며, 주요 변경 사항을 중심으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4.1 표제 관련 정보(245, 246 필드)

KCR5에서는 구현형의 정보원에 오류나 오

기가 있는 경우 특별한 지시가 없는 한 그대로 기록하고, 수정된 형태의 표제가 식별이나 접근에 중요하다고 판단되면 이형표제로 기록하도록 하고 있다. 이를 KORMARC 통합서지용에 적용하면, 245 필드의 표제에는 별도의 표시 없이 정보원에 기재되어 있는 그대로 기록하고, 임의로 수정한 표제를 '이형표제'로 간주하여 246(여러 형태의 표제) 필드에 기록한다. 기존의 기술방식과 비교하여 변경되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기존 (KCR4 적용)	245 00 ▼aThe wolrd[sic] in danger 또는 245 00 ▼aThe wolrd[i.e. world] in danger
변경 (KCR5 적용)	245 00 ▼aThe world in danger 246 1\$ ▼aThe world in danger ※ 잘못 기재되어 있어 올바른 표기를 246 필드에 '이형표제'로 기재

또한 본표제에 종속되어 활자 크기가 상대적으로 작게 표시된 '관제'가 있더라도 KCR5에서는 이를 본표제에 포함하도록 하고 있다. 관제를 제외한 표제는 246 필드에 이형표제로 기록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관제에 대한 정보를 주기(5XX)에 기록할 수도 있다. 이를 KORMARC 통합서지용에 적용하면 다음과 같다.

기존 (KCR4 적용)	245 00 ▼a(솔직한) 공학수학
변경 (KCR5 적용)	245 10 ▼a솔직한 공학수학 246 30 ▼a공학수학 500 \$\$\$ ▼a본표제의 '솔직한'은 활자 크기가 작음

한편, KCR4에서 번역서나 대역자료의 원본의 표제는 주기사항에 기록하도록 하였고, KORMARC에서는 이를 246 필드의 제2지시 기호 "9"(원표제) 또는 일반주기로 적용하였다. 그러나 KCR5에서 원어표제는 '저작의 우선표제'로 간주되며, 저작의 우선표제는 저작 전거형접근점의 대상이 된다. 따라서 246 필드에 기술하던 원표제(원어표제, 원본의 본표제)가 저작의 우선표제가 되는 경우에는 246 필드가 아닌 240(통일표제) 필드에 기술할 것을 제안하였다.

기존 (KCR4 적용)	245 00 ▼a태양은 다시 떠오른다 / ▼d어니스트 헤밍웨이 지음 ; ▼e권진아 옮김 246 19 ▼aSun also rises
변경 (KCR5 적용)	240 10 ▼aThe Sun also rises. ▼1한국어 245 10 ▼a태양은 다시 떠오른다 / ▼d어니스트 헤밍웨이 지음 ; ▼e권진아 옮김 ※ 저작의 표제에 어두관사가 존재하는 경우 이를 포함하여 기록(KCR5 1.3.1.0.2의 5)

4.2 구현형의 유형(300, 336, 337, 338 필드)

KCR5에서는 자료유형을 물리적 측면과 내용적 측면으로 구분하여 매체유형, 수록매체유형, 내용유형으로 세분하여 기록하도록 하고 있

다. 매체유형은 표현형의 속성에 해당하지만, 이를 포함하여 KORMARC 통합서지용에 적용하면 다음 <표 11>과 같다. 즉, 기존 245 필드의 ▼h(자료유형표시)는 삭제하고, 336(내용유형), 337(매체유형), 338(수록매체유형) 필드에 기술한다. 또한 기존 300 필드의 ▼a(특정자료종별과 수량)은 KCR5의 '수량'(1.1.6.3)을 참고하여 기술하되, 구현된 자료의 수록매체유형이나 지도자원, 악보, 화상자원, 입체자원 등의 세부유형을 단위수, 단위어와 함께 기록한다. 300, 336, 337, 338 필드가 적용된 단행본, CD 등의 기록 예시는 <표 12>와 같다.

KCR5에서는 둘 이상의 유형으로 구성된 자료는 모두를 기록하거나 주된 부분에 해당하는 유형만 기록하되, 수록매체 특성을 상세히 기록하는 것이 식별이나 선정에 중요한 경우에는 내용유형, 매체유형, 수록매체유형을 모두 기록하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내용을 KORMARC 통합서지용에 적용하면, 336, 337, 338 필드를 대응하여 반복 기록하되 각 매체별 구분이 필요한 경우에는 ▼3을 활용하여 자료의 범위를 지정할 수 있다. <표 12>의 마지막 예시는 리플렛과 녹음카세트로 구성된 복합자원에 대한 기록 예시이다.

<표 11> KCR5에서 구현형 유형의 적용

기존		변경	
KCR4	KORMARC	KCR5	KORMARC
자료의 유형(GMD)	245 필드 ▼h(자료유형표시)	내용유형	336 필드
		매체유형	337 필드
		수록매체유형	338 필드
특정자료종별과 자료의 수량	300 필드 ▼a(특정자료종별과 수량)	수량	300 필드 ▼a(특정자료종별과 수량)

〈표 12〉 자료유형별 적용예시

자료유형	적용예시
단행본	300 ㄴㄴ ▼a557쪽: ▼c24 cm 336 ㄴㄴ ▼a텍스트▼2kcr5 337 ㄴㄴ ▼a중개장치 없는 매체▼2kcr5 338 ㄴㄴ ▼a도서▼2kcr5
오디오자원 (CD)	300 ㄴㄴ ▼a음반 1매 (약 25분): ▼b디지털, 스테레오: ▼c12 cm 336 ㄴㄴ ▼a연주곡▼2kcr5 337 ㄴㄴ ▼a오디오▼2kcr5 338 ㄴㄴ ▼a음반▼2kcr5
비디오자원 (DVD)	300 ㄴㄴ ▼a비디오디스크 1매 (160분): ▼b유성, 천연색: ▼c12 cm 336 ㄴㄴ ▼a2차원 동화상▼2kcr5 337 ㄴㄴ ▼a비디오▼2kcr5 338 ㄴㄴ ▼a비디오디스크▼2kcr5
마이크로자료	300 ㄴㄴ ▼a마이크로필름 릴 개: ▼c35 mm 336 ㄴㄴ ▼a텍스트▼2kcr5 337 ㄴㄴ ▼a마이크로▼2kcr5 338 ㄴㄴ ▼a마이크로필름 릴▼2kcr5
복합자원 (리플렛과 녹음카세트)	300 ㄴㄴ ▼a24쪽: ▼c15 cm ← 리플렛의 형태사항 300 ㄴㄴ ▼a녹음카세트 1개: ▼c10 × 7 cm, 4mm ← 녹음카세트의 형태사항 336 ㄴㄴ ▼a텍스트▼3도서 ← 리플렛의 내용유형 336 ㄴㄴ ▼a연주곡▼3녹음카세트 ← 녹음카세트의 내용유형 337 ㄴㄴ ▼a중개장치 없는 매체▼3도서 ← 리플렛의 매체유형 337 ㄴㄴ ▼a오디오▼3녹음카세트 ← 녹음카세트의 매체유형 338 ㄴㄴ ▼a도서▼3도서 ← 리플렛의 수록매체유형 338 ㄴㄴ ▼a녹음카세트▼3녹음카세트 ← 녹음카세트의 수록매체유형

4.3 구현형의 형태적 특징(2XX 및 3XX 필드)

KCR4에서는 지도, 악보, 전자자료 등의 특정 자료유형에 대해 자료가 갖는 고유한 물리적·내용적 특성을 '자료특성사항'으로 기록하도록 하였다(앞의 〈표 2〉 참조). 이에 대해 KORMARC 통합서지용에서는, 지도자료는 255(지도제작의 수치데이터), 악보는 254(악보의 표현형식), 전자자료는 256(컴퓨터파일 특성), 연속간행물은 362(권연차, 연월차 사항), 입체자료는 507(시각자료의 비율주기) 필드에 해당 내용

을 적용하였다. 그러나 KCR5는 자료유형별 기술규칙을 기술요소별 규칙으로 전환하면서 자료특성사항을 저작과 표현형, 구현형의 요소로 재구성하였기에 기존에 사용한 필드와 유사 기능을 수행하는 필드의 용법과 범위를 비교하여 보다 바람직한 방안을 도출할 필요가 있었다. 지도, 악보, 전자자료를 대상으로 전문가 자문 및 실무진 검토를 거쳐 도출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지도자료는 기존에 사용한 255(지도제작의 수치데이터) 필드와 유사 기능을 수행하는

342(지리공간참조 정보), 352(디지털 그래픽 표현) 필드의 용법을 비교하였다. 그 결과, 세 필드 모두 지리 공간 데이터를 기록한다는 공통점이 있었다. 그러나 <표 13>과 같이 255 필드는 자료의 물리적, 시각적 특성을 기록하는 반면, 342 필드는 기술적, 시스템적 구조 파악을 위해, 352 필드는 디지털 자원의 기술적 특성 기록을 위해 활용한다는 기능적 차이점이 존재하였다. 이러한 용법의 상이함으로 인해 지도의 축척이나 좌

표 등은 기존에 사용하였던 255 필드를 유지하는 것으로 최종 제안하였다.

다음으로, 악보는 254(악보의 표현형식) 필드와 348(악보특성) 필드를 비교하여 검토하였는데, 두 필드 모두 악보의 특성을 기록한다는 공통점이 있었다. 그러나 현재 사용하는 254 필드는 텍스트로만 기록할 수 있고, 필드와 식별기호가 '반복불가'로 설정되어 있어 복수의 악보형식을 표현할 수 없다는 한계를 가지고

<표 13> 자료특성사항에 해당하는 정보의 기록방법

	활용	필드	요소	적용예시	의견수렴 최종안
지도	기존 활용	255 지도제작의 수치데이터 [반복]	▼a축척표시[반복불가] ▼b도 법표시[반복불가] ▼c경위도표 시[반복불가] ▼d적위[반복불 가]...	255 ▼a축척 1:50,000 255 ▼a축척 1:36,000 ▼b 횡단 메르카토르법	세 필드 모두 지도자원과 같은 지리 공간 데이터 정보를 기록한 다는 공통점이 있음 그러나 255 필드와 342 필드, 352 필드는 기능별 차이점이 존재 따라서 255 필드 사용을 제안함
		342 지리공간참조 정보 [반복]	▼a이름[반복불가] ▼b좌표나 거리의 단위[반복불가] ▼c위도 해상도[반복불가]...	342 ▼aPolyconic ▼ g0.9996 ▼h0 ▼i500,000 ▼ j0	
		352 디지털 그래픽 표현 [반복]	▼a직접참조방법[반복불가] ▼ b객체의 유형[반복] ▼c객체유 형의총수[반복]...	352 ▼aRaster: ▼bpixel	
악보	기존 활용	254 악보의 표현형식 [반복불가]	▼a악보의 표현형식[반복불가]	254 ▼a총보	두 필드 모두 악보의 특성을 기록 한다는 공통점이 있음 254 필드는 텍스트 기반의 기록 이고, 348 필드는 복수의 포맷을 표현할 수 있음 따라서 348 필드 사용을 제안함
		348 악보특성 [반복]	▼a악보종류용어[반복] ▼b악 보종류부호[반복] ▼c악보형식 용어[반복] ▼d악보형식부호 [반복]	348 ▼a총보 ▼a파트보 348 ▼c보표기보 ▼c그래 픽기보	
컴퓨터 파일	기존 활용	256 컴퓨터파일 특성 [반복불가]	▼a컴퓨터파일특성[반복불가]	256 ▼a전자 데이터(550레 코드) 256 ▼a전자 프로그램(1파 일:245명령문)	두 필드 모두 전자자원의 특성을 기록한다는 공통점이 있음 256 필드는 텍스트 기반의 기록 이고, 347 필드는 식별기호를 활 용하여 구체적으로 기록 가능 따라서 347 필드 사용을 제안함
		347 디지털파일 특성 [반복]	▼a파일 유형[반복] ▼b인코딩 형식[반복] ▼c파일 크기[반복] ▼d해상도[반복] ▼e지역별 인 코딩[반복]...	300 ▼a287쪽: ▼c29 cm 347 ▼a이미지 파일 347 ▼bJPEG 347 ▼d3.1 megapixels	

있었다. 반면 348 필드는 필드와 식별기호가 반복가능하여 복수의 악보형식을 표현할 수 있어 악보의 형식은 254 필드 대신에 348 필드를 사용할 것을 제안하였다.

마지막으로, 전자자료는 기존에 사용한 256(컴퓨터파일 특성) 필드와 347(디지털파일 특성) 필드를 비교하였다. 두 필드 모두 전자자료의 특성을 기록한다는 공통점이 있으나, 256 필드는 텍스트로만 기록할 수 있고, 347 필드는 다양한 식별기호를 활용하여 보다 구체적으로 자원을 기술할 수 있으며 복수의 표현이 가능하다. 따라서 256 필드 대신에 347 필드의 사용을 제안하였다.

정리하면, KCR4에서 자료특성사항으로 기록해 왔던 지도(지도자료의 수치데이터), 악보(악보의 표현형식), 전자자료(컴퓨터파일 특성)의 기록방법을 검토한 결과, KCR5를 적용한 KORMARC에서는 지도는 255 필드, 악보는 348 필드, 전자파일은 347 필드를 사용할 것을 제안하였다.

앞서 언급하였듯이, KCR5의 구현형 기술규칙은 KCR4의 많은 부분을 계승하고 있다. 그러나 KCR5와 KCR4의 가장 큰 차이점은 '형태사항'에 있다. KCR5에서는 형태사항을 수록매체사항으로 변경하고, 매체의 물리적 특성이나 매체에 저장된 정보의 형식, 부호화 측면 등에 관한 정보를 표현할 수 있도록 주제료, 응용자료, 제작방법, 세대, 레이아웃 등의 다양한 요소를 추가·확장하였다. 따라서 KCR5 구현형의 KORMARC 적용은 자연스럽게 다양한 3XX 필드의 사용으로 귀결된다. 이는 앞서 살펴본 Modern MARC에서 RDA 도입을 위해 34X 필드를 적극적으로 사용하는 변화와 동일한 맥락

이라 할 수 있다(Online Audiovisual Catalogers (OLAC), 2023).

따라서 자료유형에 따라 340(물리적 매체), 344(사운드 특성), 345(영상자원 특성), 346(비디오 특성), 347(디지털파일 특성) 필드 등과 같은 34X 필드를 사용할 것을 제안하며, 적용 예시는 <표 14>와 같다. 현재 KORMARC 통합서지용에서는 각 식별기호를 반복하여 사용할 수 있지만, 향후 URI와 레이블을 명확히 연결하기 위해서는 가급적 요소별로 분리하여 기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4.4 서지적 관계(1XX/7XX, 240 필드)

구현형과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서지적 관계는 해당 구현형에 대한 저작과 표현형, 해당 구현형과 관련된 개인·가계·단체, 해당 구현형과 관련된 다른 구현형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개체 관계 중심의 RDA 기술규칙을 적용하기 위한 구현 시나리오가 다양하게 제안되고 있지만, 현재의 MARC 형식에서는 서지레코드를 중심으로 저작과 표현형, 개인·가계·단체의 전거레코드를 연결하거나, 해당되는 전거형접근점 및 식별기호를 직접 기술하는 방법을 적용할 수 있다.

먼저, 해당 구현형에 대한 저작과 표현형의 전거형접근점을 구현형 레코드에 포함하여 구현형에서 저작, 표현형으로의 관계를 표현할 수 있다. 저작 전거형접근점은 기본적으로 <개인, 가계, 단체의 전거형접근점 + 저작의 우선표제> 혹은 <저작의 우선표제>만으로 구성한다. 저작 전거형접근점은 정보원에 기재되어 있는 그대로 기재하는 구현형의 요소와 달리, 다양한 이

〈표 14〉 자료유형별 적용예시

자료유형	적용예시
단행본	300 ㄸ ㄹa557 pages: ㄹc24 cm 340 ㄸ ㄹa종이 340 ㄸ ㄹd인쇄
오디오자원 (CD)	300 ㄸ ㄹa음반 1매 (약 25분): ㄹb디지털, 스테레오: ㄹc12 cm 340 ㄸ ㄹb12 cm 344 ㄸ ㄹa디지털 344 ㄸ ㄹc1.4 m/s 344 ㄸ ㄹg스테레오
비디오자원 (DVD)	300 ㄸ ㄹa비디오디스크 1매 (160분): ㄹb유성, 천연색: ㄹc12 cm 340 ㄸ ㄹb12 cm 344 ㄸ ㄹa디지털 344 ㄸ ㄹb광학 344 ㄸ ㄹg스테레오 346 ㄸ ㄹbNTSC 347 ㄸ ㄹa비디오 파일 347 ㄸ ㄹbDVD video
마이크로자료	300 ㄸ ㄹa마이크로필름 릴 개: ㄹc35 mm 340 ㄸ ㄹb35 mm 340 ㄸ ㄹg단색 340 ㄸ ㄹo양화

형표기 가운데 우선명 또는 우선표제를 기반으로 작성한다. 따라서 이를 위해 전거형의 식별이 필요하고, 식별된 전거형을 기록하거나 전거레코드와 연결하기 위한 별도의 장치가 필요하다. MARC21에서는 이를 위해 “1XX(저자에 주된 책임이 있는 개인·가계·단체) + 240(저작의 우선표제) 필드” 등을 사용하고 있다.

국내에서 사용해 온 서명주기입 방식의 목록규칙(KCR3, KCR4, KORMARC 기술규칙 등)에서는 원칙적으로 1XX 기본표목을 사용하지 않았으나, KCR5에서 저작 및 표현형 개체의 식별을 위해서는 구현형 서지레코드에서 1XX 필드의 사용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이미화 외, 2026). 기존과 같이 700-730 필드를 사용할 경우 다양한 저작자(특히, 구현형과 연관된 개인·가계·단체 등)의 구분이 어렵고, 결과적

으로 저작 전거형접근점의 생성에 문제를 야기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1XX 필드의 사용을 전제로 하여 구현형 레코드에 저작 및 표현형을 기록하는 방법을 〈표 15〉와 같이 제안한다.

만일 하나의 구현형에 복수의 저작이나 표현형이 존재하는 경우 주된 저작이나 표현형 이외는 7XX 필드를 사용하여 기술한다(〈표 16〉 참조).

다음으로, 해당 구현형과 관련된 다른 구현형이 있는 경우, 이를 관계표시어와 함께 구현형 서지레코드에 기록한다. 이를 위해서는 기존에 사용해 온 연관저록(76X-78X) 필드를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연관저록 필드는 관련 자원에 대한 레코드가 이미 존재하는 경우에만 사용할 수 있다. 관련 서지레코드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700 필드 등을 사용하여 관련 개체를 기술한다(〈표 17〉 참조).

〈표 15〉 구현형에서 저작 및 표현형 관계 기록 예시

구분	적용예시
구현형에서 표현형으로의 관계	100 1b ▼a무라카미 하루키, ▼d1949- , ▼e저자 240 10 ▼aノルウェイの森, ▼1한국어 245 10 ▼a노르웨이의 숲 / ▼d지은이: 무라카미 하루키 ; ▼e옮긴이: 양억관
구현형에서 저작으로의 관계 (구현형의 표제가 저작의 우선표제인 경우)	100 1b ▼a박경리, ▼g朴景利, ▼d1926-2008, ▼e저자 245 10 ▼a토지 / ▼d박경리 지음
구현형에서 저작으로의 관계 (저작의 우선표제만으로 저작 전거형 접근점이 구성되는 경우)	130 00 ▼a춘향전, ▼g영화 245 10 ▼a춘향던 / ▼d임권택 감독

〈표 16〉 구현형에서 복수의 저작 및 표현형 관계 기록 예시

구분	적용예시
종합표제가 있는 여러 저작자의 합집	245 00 ▼a중학생이 알아야 할 한국단편소설, ▼n1 / ▼d엮은이: 구인환 700 1b ▼a구인환, ▼g丘仁煥, ▼d1929-2019, ▼e엮음 700 12 ▼a이광수, ▼g李光洙, ▼d1892-1950, ▼t소년의 비애 700 12 ▼a김동인, ▼g金東仁, ▼d1900-1951, ▼t붉은 산 [이하 생략]
종합표제가 없는 여러 저작자의 합집	245 00 ▼a수레바퀴 아래서 / ▼d헤르만 헷세 著: ▼e張南駿 譯, ▼a우리를 슬프게 하는 것들 / ▼d안톤 시나크 著: ▼e張南駿 譯, ▼a말테의 手記 / ▼d릴케 著: ▼e朴煥德 譯 700 12 ▼aHesse, Hermann, ▼d1877-1962, ▼tUnterm Rad, ▼1한국어 700 12 ▼aSchnack, Anton, ▼d1892-1973, ▼tWas trauring macht, ▼1한국어 700 12 ▼aRilke, Rainer Maria, ▼d1875-1926, ▼tThe Notebooks of Malte Laurids Brigge, ▼1한국어

〈표 17〉 구현형 간 관계 기록 예시

구분	적용예시
해당 구현형과 관련된 다른 구현형 레코드가 존재하는 경우	100 1b ▼a신경숙, ▼g申京淑, ▼d1963- 245 10 ▼a엄마를 부탁해 / ▼d신경숙 776 08 ▼i디지털화 (구현형) ▼a신경숙, 申京淑, 1963- . ▼t엄마를 부탁해 ▼w (레코드 제어번호)
해당 구현형과 관련된 다른 구현형 레코드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	100 1b ▼a황현산, ▼g黃鉉産, ▼d1945-2018 245 10 ▼a밤이 선생이다: ▼b황현산 산문집 / ▼d지은이: 황현산 260 0b ▼a과주: ▼b문학동네, ▼c2013 700 1b ▼i이판 (구현형) ▼a황현산, 黃鉉産, 1945-2018, ▼t밤이 선생이다 [큰활자본]

5. 결론

목록을 둘러싼 체계와 환경이 변화하고 있다. 개념모델과 내용규칙은 물론 입력포맷까지 연쇄적이고 상호 연계되어 변하면서 각국의 도서관에서는 레코드 중심의 데이터에서 개체와 개체 간의 관계를 표현할 수 있는 새로운 구조화 방식을 적극적으로 채택하고 있다. 국내도 이러한 움직임에 발맞추어 2013년부터 논의를 시작하여 2025년에 KCR5를 발표하였다. KCR5는 전통적인 자원의 기술 방식을 넘어, 개체-관계를 중심으로 하는 RDA를 적극 수용하고 개별 자원들의 유기적 관계성을 강조한 목록규칙이다. 그러나 KCR5는 입력 구문으로부터 독립된 내용 중심의 표준이기 때문에 국내 도서관관계에서는 KORMARC 환경에서 KCR5를 어떻게 적용할지에 대한 고민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

이러한 상황에서 본 연구는 구현형 개체에 집중하여 KCR5의 개정 내용을 살펴보고, 이를 KORMARC 통합서지용에 적용하기 위한 실제적 방안을 모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삼았다. 이를 위해 (1) RDA와 ISBDM에서 제시된 구현형의 기술방식 변화를 살펴보고, Linky MARC와 Modern MARC에서 나타난 적용방식의 변화를 검토한 후, (2) KCR5 구현형 개체의 기술요소 및 주요 개정사항을 짚어보고, (3) KORMARC 형식에 KCR5 구현형 기술규칙을 적용하기 위한 방안을 제안하였다. 본 연구에서 제안한 핵심적인 변경사항은 245, 246 필드에서 표제와 관련한 기술방식의 변화, 300, 336, 337, 338 필드를 활용한 구현형의 유형에 대한 기술, 2XX와 3XX 필드를 활용한 구현형의 형태적 특징

에 대한 기술, 1XX와 7XX, 240 필드를 활용한 구현형의 서지적 관계의 표현 등이다.

본 연구에서 제안한 내용은 KORMARC 형식의 개정을 전제로 하지 않고 현재의 KORMARC를 활용하여 KCR5를 적용하는 방안이다. KORMARC 통합서지용(2023 개정)은 RDA를 반영하여 개정된 MARC21을 토대로 이미 2023년에 개정된 것으로, KCR5의 적용에 크게 무리가 없을 것이라는 판단이 있었고, 아울러 KORMARC 환경에 KCR5의 안정적 안착(soft landing)이 가능한 방법을 모색함으로써 도서관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함이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제안한 KORMARC 필드에 데이터를 충실히 입력하게 되면 최소한의 시행착오를 통해 향후 새로운 서지환경에서 개체-관계를 풍부하게 표현할 수 있는 기반이 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면 구조인 KORMARC이 계층적이고 입체적이며 네트워크 기술구조를 지향하는 KCR5를 표현하기 위해서 선결되어야 할 과제들은 여전히 존재한다. 가령, 중복된 구현형 데이터를 통합하고 하나의 개체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전거데이터의 구축 및 고도화 작업이 필수이고, 링크드데이터 형식의 기반을 마련하는데 있어 개체를 식별하는 URI의 발행도 선결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변화하는 서지환경 속에서 개체-관계 중심의 KCR5와 레코드 중심인 KORMARC의 구조적 간극을 해소하기 위한 기초연구로서 차세대 서지환경으로 나아가기 위한 실천적 토대를 마련하였다는 측면에서 의의를 가진다.

참 고 문 헌

- 국립중앙도서관 (2023). KORMARC 통합서지용. <https://www.nl.go.kr/>
- 김정현 (2025). 한국목록규칙 제5판과 제4판의 서지기술 비교 분석.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56(3), 1-18.
<https://doi.org/10.16981/kliss.56.3.202509.1>
- 이미화, 이은주, 노지현 (2026). KORMARC에서의 KCR5 저작·표현형 기술에 관한 연구. *한국문헌정보학회지*, 60(1), 55-75. <https://doi.org/10.4275/KSLIS.2026.60.1.055>
- 한국도서관협회 (2003). 한국목록규칙 (제4판). 서울: 한국도서관협회.
- 한국도서관협회 (2025). 한국목록규칙 (제5판). 서울: 한국도서관협회.
- Dunsire, G. (2023). Entity-based cataloguing: the new environment of ISBD. IFLA Webinar From ISBD to ISBDM. Available:
<https://repository.ifla.org/bitstreams/fb79e3ee-b81f-4421-af4f-26a84ffae949/download>
- ISBD Review Group (2025). ISBDM. Available: <https://www.iflstandards.info/ISBDM/>
- Library of Congress (2023). "Modern" MARC. Available:
<https://www.loc.gov/aba/pcc/bibframe/TaskGroups/URI-TaskGroup.html>
- Online Audiovisual Catalogers(OLAC) (2023, October). OLAC best practices for cataloging DVD-Video and Blu-ray discs, objects, streaming media, and video games using the original RDA toolkit and MARC21. Online Audiovisual Catalogers. Available:
<https://cornerstone.lib.mnsu.edu/olac-publications/28/>
- RDA Steering Committee (2017a). Original RDA. Available: <https://original.rdatoolkit.org/>
- RDA Steering Committee (2017b). RDA to MARC bibliographic mapping. Available:
<http://original.rdatoolkit.org/jscmap1.html>
- Wallis, R. (2018, June 26). MARC and beyond: our three Linked Data choices. 2018 IFLA World Library and Information Congress(WLIC), Available:
<https://repository.ifla.org/items/55db2c07-58da-46e2-9bd6-30518d42dfc6>
- Williamschen, J. (2025, January 27). Modern MARC. Library of Congress BIBFRAME Update Forum. Available: <https://www.loc.gov/bibframe/news/bibframe-update-jan2025.html>

• 국문 참고자료의 영어 표기

(English translation / romanization of references originally written in Korean)

- Kim, Jeong-Hyen (2025). A comparative analysis of bibliographic description in KCR5 and KCR4. *Journal of Korean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Society*, 56(3), 1-18.

Korean Library Association (2003). Korean Cataloguing Rules (4th ed.). Seoul: Korean Library Association.

Korean Library Association (2025). Korean Cataloguing Rules (5th ed.). Seoul: Korean Library Association.

Lee, Mihwa, Lee, Eun-Ju, & Rho, Jee-Hyun (2026). A study on describing KCR5 work and expression in KORMARC.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60(1), 55-75.

National Library of Korea (2023). KORMARC (Korean Machine Readable Cataloging) for bibliographic data. <https://www.nl.go.kr/>

